

유커 한국여행 금지...한국 제품 통관 거부

한·중 깊어지는 ‘사드 갈등’

수만명 여행 취소 속출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조리 생선식품 폐기 처분도

“한·중관계 개선땐 여행 재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한·중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인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는 물론 한국산 제품의 통관 거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행업계 초비상=중국이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실제로 예정된 한국관광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5일 이후 한국관광 상품을 더는 팔지 말라고 중국 현지 여행사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이미 예약된 관광 일정마저 포기할 만큼 중국 당국의 압박과 규제 수위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일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제조·판매사 코우친 그룹은 4월 17~21일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열고 임직원 4000 명에게 포상관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방한계획을 취소했다.

중국 의류기기업체 유더그룹 임직원 1만2000 명도 당초 3월 인천에서 기업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4월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이제 4월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이맘때 월미도 ‘치맥 파티’로 유명해진 중국 아오란그룹 역시 올해 다시 인천을 방문하겠다고 지난해 인천시와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재방문 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 여행 ‘취소’ 사례 뿐 아니라 본격적인 한국 여행 유치 실적 감소 현상 역시 조만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당국이 제시한 ‘한국 관광 중단’ 지침(3월 15일)을 열흘이나 앞두고 있지만 이미 씨트립과 취날왕, 투니우(途牛) 등 중



5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국내 관광·면세 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 대형 여행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왕중 국제여행사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한국 상품 판매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한국 여행을 가겠다며 돈을 냈거나 계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대체 여행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면서 “중한 관계가 완화된 뒤 한국 여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중여행사의 온라인 영업 담당인 귀진밍은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결정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옳은 애국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고객에게 환불할 것이며 취소에 따른 모든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거부도 잇따라=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라오닝성 다오야오 검험 검역국은 지난 4일 수입된 한국식품들이

기준에 맞지 않다며 통관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오야오 검역국은 이들 제품의 생산 날짜와 위생 증명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다며 통관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에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식품 중 하나는 18가지 종류로 구성된 2.1t 분량이며 조리된 한국산 생선 식품도 첨가제가 중국 기준치에 맞지 않다며 폐기 처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軍 당국, 사드 배치 부지에 초소 설치

투쟁위, 1인 시위 이어가

군(軍) 당국은 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주변에 초소 설치작업을 벌였다.

군은 이날 오후 1시 공사와 경계등 설치 공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1시 30분에 초소들을 설치해 경계근무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

하기 위한 작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부분 보안사항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고 경계시설을 보강한 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주말 이틀간 휴식한 뒤 6일부터 기지 설계와 공사를 앞둔 현장 실측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주골프

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와 농소면 노곡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 등의 주민이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저녁에는 성주군청 앞 공영주차장과 김천역 광장 등에서 100여명씩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벌였다.

김천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소성리에서 사드 반대행사 200인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소성리 진발교 삼거리에서 성주골프장 진입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나 주민과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연합뉴스

지리산 천왕봉, 여수 무슬목 ‘명승 후보’ 합격점

일출·낙조 풍경 빼어나

지리산 천왕봉, 여수 무슬목, 신안 가거도, 옥정호,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 무주 덕유산 향적봉 일원, 경기도 파주 신탄신, 충북 제천 월악산 영봉 등이 일출·낙조 풍

경으로 명승 지정 가능성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황국웅 교수)이 전국의 일출·낙조 명소 15곳을 뽑아 명승 지정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곳이 명승으로서의 잠재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단은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 풍경에 대해 “압도적인 장엄미가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경 조망지로 일출과 낙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명승의 지정 기준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과 식물

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저명한 경관의 정광 지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고문헌과 옛 그림에 나타난 일출·낙조 장소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관광지, 사진작가 추천 장소 123곳 가운데 이미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거나 경관이 크게 훼손된 곳을 제외한 40곳을 추린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장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수소·전기차 카 셰어링 발대식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사업 본격화

오늘 시청 앞 시범운영

광주시가 수소차·전기차 카 셰어링(carsharing·자동차 공유) 발대식을 여는 등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6일 시청 야외 문화광장에서 ‘수소 및 전기차 융·복합 카셰어링’ 발대식을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발대식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조봉환 창조경제추진단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과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카 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쓰는 제도로, 스마트폰 앱이나 회원카드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주차난과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도 크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카 셰어링 대상 자동차가 가솔린과 LPG가 아닌 수소와 전기차라는 점이다.

수소차 카 셰어링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전기차 카 셰어링은 2012년 사용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울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소차 택시 정도가 눈에 띌 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카 셰어링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며 벤처기업 제이카가 운영을 맡는다.

23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27대, 수소차 5대를 확보했으며 이달 중 수소차 10대를 추가 도입한다.

사업 효과가 크면 전남지역으로도 확

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 인프라는 광산구 오선동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동곡동 해양도시가스 CNG 충전소에 이미 마련했거나 6월 중 완공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0대를 충전할 수 있다.

투싼ix 기준, 한번 충전에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수소차 카셰어링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일반 렌터카나 카 셰어링보다 저렴한 이용 비용,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낮은 인식 해소,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선결과 미지수 제고 등이 기대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솔린이나 디젤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수소 차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발대식과 함께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된다.

광주시와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연관 및 실증 산업 육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58만대, 수소자동차 1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내버스, 택시, 렌터카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격차로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 노력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잠 부족하면 비만 확률 높아진다

‘5시간 이하’ 그룹, ‘7시간’보다 22% 증가

잠이 부족한 사람은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상민·김규용 서울의대 교수팀은 2008~2011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6905명의 수면 시간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조사대상자의 하루 수면시간을 5시간·6시간·7시간·8시간 이하로 구분했다. 그 결과,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그룹(남성 872명·여성 1382명)과 7시간 이하인 그룹(남성 2215명·여성 2863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5시간 이하 그룹은 7시간 이하 그룹보

다 몸의 전체적인 비만과 복부비만 위험도가 각각 22%, 32% 증가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또 수면시간이 적은 그룹일수록 체지방이 높아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상민 교수는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체내 호르몬인 ‘렐틴’과 ‘그렐린’ 분비량 균형에 나쁜 영향을 미쳐 비만 위험도를 높이고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규용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3.3.(금) 09:10 (8교반) ·토요일 오전반: 2017.3.4.(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3.6.(월) 14:10 (교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3.2.(목) 09:10 (8교반) ·토요일 오후반: 2016.3.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 4.(토)	2017. 1.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학교교육 진흥회 회원지서 자격획득 기회 부여 ·각 전문대학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장 및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 ~ 사범위특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학교교육 진흥회 회원지서 자격획득 기회 부여 ·각 전문대학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장 및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 ~ 사범위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들건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수업기간: 2017년 3월 2일(수) ~ 2017년 6월 10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7-309호

2017년도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모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제31회) 광주광역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6일

광주광역시

1. 수상부문(5개부문)
가. 사회봉사대상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어웃들게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검토요청사항이 뚜렷한 자
·신분, 명예, 잡지,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활동과 출판분야에 공헌한 자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광주 건설에 크게 기여한 자
나. 학술대상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분야에 광범위한 연구실적 또는 새로운 논문 발표로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다. 예술대상
·공간예술, 무대예술, 전통예술 등 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등 문학분야에 공헌한 자
라. 체육대상
·체육지도 및 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자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자
마. 지역경제진흥대상
·기업발전과 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공헌한 자
·과학기술 발달과 수출산업 육성에 공헌한 자
·시민 자족의식 함양에 공헌한 자
2. 시상인원 및 내용
·시상인원: 부문별 각 1명(단,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함)
·시상내용: 시민대상 상패
3. 수상후보자 자격
·각 시상부문에 해당 광주광역시의 명예선양과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한 자(사망자 포함)
·같은 공적으로 시민대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또는 같은 공적으로 다른 광역에서도 시도의 상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자
·피상년후추진, 피상당후추진,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제외
4. 수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권자: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급,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나, 구비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이상 소정양식) 각 1부
·주민등록등본(공고일 현재 3년간 주소이력 확인이 가능한 것) 1통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
·기타 공적 증명자료(관련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린 등) 1부
다. 추천서류 접수
·기 간: 2017. 3. 7. ~ 4. 6.(공휴일 제외)
·장 소: 광주광역시청 자치행정과(2층)
·우편접수: 우3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자치행정과
·방 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7. 4. 6. 18:00 도착분까지 유요)
5. 수상자 발표: 2017. 5. 18. 까지
6. 시 상: 2017. 5. 21.(제52회 시민의 날 행사)
7. 기 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수상 후 추천의 공적이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권을 취소하고 수상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13-2913, 팩스 613-2919)